



#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요.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마태오 10장 40절)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파견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반갑게 맞이해주었어요. 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보살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해주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온 마음 다해 맞이하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더 반갑게 맞이하고자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예요.



이탈리아에 사는 에이미의 경험담이에요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는 4젠 모임에 가져갈 케이크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과 같이 엄마 옆에서 케이크 만드는 것을 도와드렸어요.



마침 레몬을 갈아야 했는데, 엄마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판을 쓰고 난 후에 씻어야 하는 것이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제가 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엄마는 좋아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함께 케이크를 자주 만들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